

이코노 & 비즈 피플

김수공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

“조합 출하량 50% 이상 판매”

하나로클럽 매장 56→108개로 확대  
금·토 회의 대신 현장 목소리 청취

“농민들은 농산물 제값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판매농협’을 구현하겠습니다.” 김수공(57)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이사는 2일 농협출판식을 마친 후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남의 배추·양파 생산지를 찾아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 대표는 2일 저녁 광주에 도착해 하우스에서 봄 배추를 재배하는 나주시 산포면 농가를 방문한 데 이어 3일 오전에는 무안군 운남면 겨울배추 저장창고와 전남 서남부채소농협을 찾았다. 그는 가격폭락으로 수확을 포기해 썩어버린 무안 배추밭에 들어가 배추 속을 잘라보며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도 했다.



신남에서 상징적으로 농도(農道)인 전남을 먼저 찾았다”며 “앞으로도 매주 금·토요일은 회의 대신 농업현장으로 찾아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농협 경제사업부문 첫 수장으로 선임된 김 대표의 역점사업은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산물 유통혁신’이다. 이를 위해 김대표는 자본금 5조 9500억원을 투입해 ▲경제사업의

자립경영 기반구축 ▲중앙회의 농산물 판매역량을 대폭 강화해 판매 중심 농협 구현 ▲산지유통을 활성화해 중앙회 도매조직과 산지 농협간 효율적인 계열화 체계 구축 ▲농업인의 영농생산비 획기적인 절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축산물의 유통 계열화 추진을 비롯해 직영 하나로클럽 매장을 현 56개에서 108개로 늘리고,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장성 등 전국 5개소에 농산물 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 전문 도매조직을 만들어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유통단계를 3단계로 줄여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조합출하 물량의 50% 이상을 판매해주는 ‘판매농협’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앞으로 하나로클럽 매장은 ‘지역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읍·면 단위가 아닌 도시 소비자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이에 따른 수반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 출신인 김대표는 지난 1975년 농협에 첫발을 내디딘 후 전남지역본부 경제 부본부장, 중앙회 공판지원부장, 구례교육원장, 기업고객본부 담당 상무 등을 역임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비타민 창고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는 형형색색의 파프리카를 선보여 고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파프리카는 비타민, 철분, 칼슘 등 영양소가 풍부하고 다른 채소에 비해 당도가 높으면서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 좋다. 또한 비타민C가 토마토의 5배, 레몬보다 2배 높아 피부탄력과 수분 유지에 도움을 준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마그네틱카드 사용 “3개월 더”

제한조치 6월로 연기

마그네틱 방식의 카드 사용자에 대한 은행 자동화기기(CD·ATM) 사용 제한 조치가 6월1일로 연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아직 집적회로(IC) 방식 카드로 전환하지 않은 마그네틱 카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마그네틱 카드 사용자들은 지난 2일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인출이 제한됐다. IC 카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조치였으나, 충분한 사전안내가 없어 급한 경우가 있는 고객들까지 IC 카드 교체에 은행 창구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원은 사용제한 조치

를 풀고, 6월1일까지 마그네틱 카드 사용자들에게 우편물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IC카드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한 은행과 카드회사가 IC카드 발급 전용창구를 확대하고, 물량이 부족한 IC칩도 추가로 확보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금융원은 금융회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고객불편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TV 광고 등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5월 중에는 금융회사별 IC카드 전환실적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6월1일부터는 오전 10시~오후 3시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마그네틱카드의 현금인출이 제한된다. 9월부터는 IC 카드만 쓸 수 있고 마그네틱카드 사용은 전면 차단된다. <연합뉴스>

새 얼굴

“농민 지원 늘려 지역 밀착 강화”

박중수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장



“도민과 농업인 등 고객들에게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 2일 취임한 박중수(53)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본부장은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2일 새롭게 출범한 농협은행은 국내에서 유일한 민측자본 은행”이라며 “각종 영업활동을 통해서 도내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경영방침을 ‘지역밀착은

행·고객중심 은행·마케팅 최고은행’으로 정하고, 협동조합 은행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출신인 박 본부장은 목표고와 전남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82년 농협에 입사해 전남연수원 교수, 중앙회 기획실 부부장, 목포신안시군지부장, 신용보증 업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송기동기자 song@>

은행 홍보하고 장학금 받고

광주은행 홍보대사 모집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광주은행의 브랜드 이미지를 대외에 홍보하고 지역인재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키 위해 ‘KJB 광주은행대학생 홍보대사(KJB Campus Friends)’5기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이며 광주·전남 소재 4년제 대학생 2,3학년 재학생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방법은 광주은행 인터넷 홈페이지(www.kjbank.com)를

통해 대학생 홍보대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 접수하면 된다. 홍보대사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총 44명 내외의 젊음과 패기가 넘치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선발 예정이다.

선발된 홍보대사는 올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매월 활동비가 지급되고, 우수 홍보대사에게는 장학금 지급은 물론 광주은행 직원 채용시 우대 혜택도 주어진다.

문의: 광주은행 사회공헌사무국 대학생 홍보대사 담당자 239-5063. <최재호기자 lion@>

대형마트 영업 제한  
목포시민 80% 찬성

목포시민 10명 가운데 8명 가량이 대형 마트 영업제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목포경찰서는 2일 ‘대형 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목포시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8.8%가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대형마트 전통(재래)시장, 동네 슈퍼 등 지역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처해 있다는 응답자는 91.4%에 이르렀다. 응답자의 82.2%는 의무휴업일 지정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주간 증시 포커스

코스피 상승 흐름 주목...반도체·中 내수주 유망

잘나갔던 KOSPI가 2월 중순부터는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매수 강도는 다소 둔화됐고,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국내 자금의 차이실현 물량은 여전히 지수의 추가 상승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국내 제조업 경기를 대변하는 광공업생산이 전년동기대비 31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전월에 비해 네 달 만에 상승전전(3.3%)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지 역시 2개월 연속 개선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생산 및 소비의 저점 통과 가능성과 투자 모멘텀의 확대 추이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국내 경기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유럽의 경우 지난달 29일 유럽중앙은행이 실시한 2차 장기대출(LTRO) 신청 규모가 예상치를 웃도는 5,295억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유럽연합 27개국 정상들이 1일 유로존 구제금융기금 분담금을 당초 예정보다 일찍 납부하기로 합의한 것이나, 유럽제정안정기금(EFSF)과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재원 확대 여부를 이달 중에 결정짓기로 한 것도 유럽사태가 일단 완화국면에 들어섰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다만, 유가와 연화 환율 동향은 좀 더 점검해봐야 할 변수이다. 글로벌 원유제고와 연화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감안하면 최근과 같은 가파른 속도의 유가 상승세와 연화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지만, 민감도에 따른 단기적인 주가 차별화 가능성에는 여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상당하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미국에서는 ISM비 제조업지수, 제조업수주, 고용지표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잇따를 예정이다. 특히 고용지표의 경우 최근 일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지표



박 중 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전북사업으로 부자되세요!**

전남 완도에 있는 “전라남도해양바이오산업센터” 완도전복가공산업활성화사업단은 지식경제부 지원 RIS 사업단으로서 전복으로 성공하려는 기업이나 창업자를 위해 제품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하면서 중국, 일본 등 수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복 건제품, 통조림, 수출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열렸습니다**  
**이제 완도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성공하세요**

저희 센터를 찾아주시면, 사무실, 파일럿프랜트,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특히 통조림, 연질캡슐 생산라인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등 해외투자 기업체의 국내이전을 준비중인 사업가분
- 청년 취업희망자, 은퇴자 소규모창업 희망자 분
- 재외 동포, 중국인, 일본인 등 해외 기업가 완도에서 사업하실분
- 북경, 상해 정부 수산물 매장 진출을 희망하시는분 많은 연락과 상담 바랍니다

공정전경, 통조림·연질캡슐 설비

**전라남도 해양바이오산업센터 부설 완도전복가공산업활성화사업단**  
문의전화 : 061-550-1717  
메일 : realgon85@gmail.com · 홈페이지 : www.wapic.co.kr